


(참고자료-참조7)



**삼평동 641번지 그것이 알고싶다**

성남시의회  
형금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 벤처기업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

성남 첫 여성시장...“연비 글로벌R&D센터 긍정적 효과 기대”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본주의 성남시장 당선인이 분당-한국 과학을 ICT와 게임산업 중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직표한시했다.

26일 본주의 성남시장 당선인은 아이뉴스24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분당-한국 과학을 ICT-게임산업 중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이 구상을 보냈다. 현재까지 동성호를 위해 일기 내 혁신성장 창업인도 5천여명을 만들어 창업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게임 산업을 이끈다 할 정도로 게임 강국”이라며 “그 중심에 있는 한국을 게임 및 문화 콘텐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세계적인 게임월드페스티벌 개최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 당선인은 분당-한국 과학을 영역별 4대 혁신성장 전략거점 중 하나로 선출, 게임 및 문화콘텐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게임의 가치 및 글로벌 게임월드페스티벌 등 가치를 약속했다.

분당-한국 과학노벨라는 책은, 연세소프트, H&V엔터테인먼트, 그라비아미프 등 국내 주요 게임 업체들이 불합치하는 최첨단 산업 단지다.

◆“연세소프트 글로벌R&D센터 설립, 긍정적 효과 기대”

본 당선인은 연세소프트의 글로벌R&D센터(가칭) 설립에도 기대를 보였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월 연세소프트와 글로벌R&D센터 설립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성남시는 글로벌R&D센터 설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연세소프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당시 성남시는 글로벌R&D센터가 연간 약 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1조5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 등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 MOU는 지방선거 등을 앞둔 상태에서 달 그대로 시장이 교체 될 경우 추진에 변화가 생길 지 관심을 모았다. MOU가 통상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황 변화에 따른 파기 등이 가능한 때문이다. 이 MOU 때도 법적 구속력 부여 등 예외 조항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본 당선인은 이 같은 가능성을 일축, 현재대로 MOU에 따른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 당선인은 “MOU 내용 실행은 시의 부지 여건을 다루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성남시와 연세소프트가 좋은 취지로 MOU를 맺은 만큼 시장이 바뀌었다고 이미 부패화 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부지는 당초 구청사 부지로 마련됐지만, 장기간 방치로 지난 2015년 일반업무시설로 용도 변경됐다. 이에 성남시는 이듬해 이 부지를 기업유치를 위해 매각하기로 결정, 올 초 연세소프트와 글로벌R&D센터 유치 협약을 맺은 것.

그는 오히려 “분당-한국 과학을 ICT-게임산업 중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인 만큼 해당 부지 추진 시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협약에 따르면 연세소프트 글로벌R&D센터는 판교 공공부지가 있는 분당구 삼평동에 2만5천720㎡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